

##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정정서, 심리적 안녕감 및 임파워먼트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오 옥 선<sup>†</sup>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부정정서가 삶의 만족도에 이르는 과정에서 심리적 안녕감과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부정정서로 인한 삶의 만족도 저하를 완화시키기 위한 요인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속성에 따른 심리요인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에 있는 다문화가정 어머니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첫째, 부정 정서의 경우 연령, 결혼 연수, 본인의 최종학력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심리적 안녕감과 임파워먼트에 있어서도 연령, 결혼연수, 본인 및 배우자의 최종학력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부정 정서, 심리적 안녕감, 임파워먼트가 삶의 만족도에 이르는 경로를 살펴본 결과 부정 정서-임파워먼트, 부정 정서-삶의 만족, 심리적 안녕감-삶의 만족도에 대한 경로효과가 발견되었다. 이는 부정 정서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심리적 안녕감, 임파워먼트 나아가 삶의 만족도라는 3가지 차원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심리적 요인을 세부적으로 고찰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위 연구결과는 향후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본다.

주요어 : 다문화가정 어머니, 부정정서, 심리적 안녕감, 임파워먼트, 삶의 만족도

---

<sup>†</sup> 교신저자 : 오옥선,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Tel : 010-9540-0640, E-mail : sunney05@hanmail.net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겪는 가정 폭력, 사회 부적응, 자녀 양육의 어려움 등은 다문화 사회로의 유입 초기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로, 여기서 수반되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심리적 고통은 해결되어야 할 사회적 과제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가정폭력, 부부갈등, 이혼, 체류문제 등과 관련하여 다문화 가정 여성들의 상담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 여성들의 폭력경험은 폭력의 대물림 됨으로써 그 자녀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전성무, 2013). 이처럼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갈등은 다문화가정 전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가출, 이혼 등 가족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자녀양육과 교육의 역할을 어머니의 몫으로 간주하는 한국사회의 특성상,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사회적응의 어려움, 출산 및 양육이라는 이중고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다(송선화, 안효자, 2011). 실제 대다수의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한국생활의 힘든 점으로 자녀양육과 교육 문제를 지적하였으며(서울시정개발원, 2007; 경기도여성개발원, 2008) 가족 내적인 차원에서 부부갈등이나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과 시부모와의 갈등 등을 심리적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꼽고 있다(보건복지부, 2005; 송미경, 지승희, 2007). 이러한 상태의 지속은 불안이나 우울, 무기력, 소외감 등과 같은 부정 정서의 발생빈도를 증가시키는데(김도희, 이경은, 2010; 임혁, 2010), 한 예로 지은진 외(2012)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일반인들보다 사회적, 정서적 지지망의 부족 및 정신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요인들에 의한 우울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일반인들에 비해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사회적·심리적 기반이 열악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다문화가정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은 개인의 심리적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혼만족도는 물론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간과될 수 없는 부분이다(성현란, 2011; 오옥선, 김성봉, 2012). 이와 관련하여 양옥경과 김연수(2007)는 서울 지역의 결혼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결혼이민여성의 26%가 우울을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우울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삶의 만족도란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 따르면(박병선, 진혜민, 허만세, 2011; 최삼옥·나란희·김한호·최성빈·최영숙, 2006; Adelman, Taylor, & Nelson, 1989) 우울이나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요인들은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유사하게 조성례, 문재우(2012)는 삶의 만족도와 우울, 스트레스 간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갈등과 여기서 비롯되는 부정정서에 집중하여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가 야기할 수 있는 결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삶의 질과 관련 있는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이 있는지 고찰할 것이다. 상당수의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부정정서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봤을 때, 부정정서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매개변수로 심리적 안녕감과 임파워먼트

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심리적 안녕감은 자신의 삶에 대한 정서적·인지적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Diener, 2000),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과정을 뜻하는 임파워먼트와 함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거론되어 왔다. 심리적 안녕감은 삶의 질, 삶의 만족도 등 긍정적인 특성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김경민, 임정하, 2012;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김남희, 2005; 김경순, 2006; 김현실, 2011; 안미숙, 2010) 임파워먼트는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이해하고 내부의 힘을 찾도록 함으로써(Parsons, 1999),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예방하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정정서, 심리적 안녕감, 임파워먼트, 삶의 만족도 중 어떠한 요인이 선행 요인지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또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갈등과 심리적 문제에 주목하여 부정정서의 증가로 인한 삶의 만족도 저하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부정정서를 심리적 안녕감, 임파워먼트, 삶의 만족도로 이어지는 출발점으로 상정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심리적 문제는 그들이 처한 사회 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를 밝히는 작업은 다문화가정의 갈등해소를 위한 정책마련의 실마리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연령, 결혼연수, 본인 및 배우자의 학력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속성에 따라 부정정서, 심리적 안녕감, 임파워먼트, 삶의 만족도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

였다.

####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갈등 요인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으로 인한 심각한 갈등을 경험한다. 그 중 부부갈등은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부분 중 하나로 국제결혼 부부의 경우 문화적 차이로 인한 성역할 갈등,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 물리적·시간적·사회적 공간의 협소화를 인한 스트레스,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한 갈등 등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어려움이 복합된 환경에 처해 있다(이명자, 2010).

국제결혼가족의 남성 배우자들은 자신보다 나이 어린 외국의 신부들이 좀 더 순종적이라거나 가족중심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결혼을 하는 경향이 있다(김순이, 2010). 또한 한국보다 못 사는 출신국 여성들의 경우 한국인을 배우자로 맞이했을 때 가부장적인 부부관계나 시집식구와의 관계를 기대하고 강요받는 경향이 있다. 언어적·문화적 장벽으로 인한 권력의 전환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국제결혼 배우자들은 언어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재정적 의사결정에 참여가 매우 어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위장결혼과 조기이혼과 같은 일부 부정적 사례에서 비롯된 불신으로 외국인 배우자들이 경제권 행사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박경동, 2007). 경제적 활동과 관련해서도 언어적·문화적 장벽, 지방 거주, 가족의 취업 반대 등에 따른 많은 장애가 있어 경제적 자립은 더욱 어려운 형편이다.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겪는 갈등요인 중 가장 빈번하고 심각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

는 가정에서의 폭력이다(오세연, 신인봉, 2012). 한 국제결혼여성에 관한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0%가 남편의 학대에 시달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집 식구들의 차별적 대우에서도 불만족스러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3). 특히 가정폭력을 당하는 외국인 배우자들은 문제를 의논하고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아 가정폭력에 무방비상태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결혼이주자들의 경우 상이한 문화와 생김새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크다. 한국사회 내에 팽배한 인종차별이나 자문화 중심성은 부부 모두에게 사회 내의 차별과 편견을 경험하게 하며 적응 스트레스는 부부관계에 긴장과 좌절을 가져다주기 쉽다(변미희, 강기정, 2010).

다문화가정 여성들에게 수반되는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가정빈곤이다. 국제결혼가족 중 상당수의 남성은 저소득과 저학력의 취약계층에 속하는 경향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초졸, 중졸, 고졸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업 활동에 있어서도 반복적이고 단순한 직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빈곤이나 경제적 불안정성은 가족관계의 어려움에 기인함은 물론 다문화가정 여성 자신에게도 심리적 불안감을 야기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경제적 빈곤은 자녀에게 풍족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빈곤의 악순환을 만들어내기도 한다(김승권, 2010). 선행연구자들은 위와 같은 갈등의 선행요인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의 설명력을 입증해 왔다. 그 예로, 장은순(2011)은 배우자의 학력이 낮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 가족응집성이 높았으며 또한 부부만족도는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부부간의 결합력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음을 검증하

였다. 유사하게 강경미(2013)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게 나타났음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서 연령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이항범(2012)은 학력과 결혼 지속기간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연령의 경우, 20대가 30, 40대보다 생활수준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은 삶의 만족도와 정적 관계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위의 논의들을 토대로 봤을 때,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심리적 요인은 그들의 사회환경적 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지만 연구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정정서가 삶의 만족도에 이르는 과정으로서 심리적 안녕감과 임파워먼트 등 4개 변인의 종합적인 효과를 고려한 연구는 부재하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인구사회학적 속성과 부정정서, 심리적 안녕감, 임파워먼트,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인의 차이는 어떠한가?

부정적 정서와 삶의 만족도

**부정적 정서와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논의**  
한 사회에 대한 적응과정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문화적응 스트레스라고 하고(Berry, 1997), 이는 불안이나 우울, 고립감, 소외감, 무기력감 등을 유발하는 선행요인으로 부정적 정서와 심리적 스트레스의 증가는 적절한 수준의 자녀양육 및 자

녀교육을 저해하는 등 2차적인 어려움을 발생시킨다(곽금주, 2008; 서울시정 개발연구원, 2007; 이선미, 이경아, 2010).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나 가족을 포함한 주위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지지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김오남, 2006; 양옥경, 김연수, 2007; 이기영 외, 2009). 다시 말해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키우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가족들의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긍정적인 관계가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예방하는 요인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적 측면에서 볼 때 상이한 국가 구성원들로 맺어진 다문화가정의 특성상 일반적인 가정보다 잦은 갈등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곽금주(2008)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일반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우울, 낙관성, 양육스트레스, 양육태도 등 다양한 심리적 측면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일반가정의 어머니들보다 더 우울하고 비판적이며 양육스트레스가 큰 경향이 있었다. 이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심리적 요인을 연구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입증한다. 적절한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부모와 가족과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자녀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문제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정정서를 관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부정정서의 완화는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다문화가정 어머니 본인에게도 질 높은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옥형(2012)의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정정서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 연구자는 스트레스가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심리적 안녕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심리적 안녕감의 증진과정을 통해 스트레스 사건에 덜 직면하게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더불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에도 이러한 긍정심리 요소들을 사용하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손실된 내적 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스트레스는 부정적 정서에,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 정서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긍정·부정 정서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변인인 심리적 안녕감은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과 상호관련이 높은 개념으로 간주된다. 주관적 안녕감은 개인의 경험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정서적 및 인지적 평가이다(Diener, 2000). Ryff(1989)는 삶의 질을 주관적 안녕감으로 이해하려는 입장에 대해 근본적인 비판을 가하면서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이 단지 행복한 삶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김명소 외, 2001).

구체적으로 Ryff(1989)는 여러 심리학적 이론들을 기초로 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6개의 차원으로 이루어진 척도를 개발하였고 이것이 측정하는 삶의 질을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이라 칭하였다. 이 6개의 차원은 자아수용(self acceptance), 긍정적 대인관계(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자율성

(autonomy), 환경에 대한 통제력(enviromental mastery), 삶의 목적(purpose in life),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을 포함하고 있다(김명소 외, 2001). 심리적 안녕감은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애착 등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공영길, 2009; 김현옥, 2010). 그 예로 이윤희(2009)는 직장인의 직무만족과 심리적 안녕감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고 하위요인별로는 자율성과 환경에 대한 통제를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과 전체변인에서 직무만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심리적 안녕감이 희망, 행복수준, 학교 생활적응, 인정과 관심, 학교수업 적응, 자기효능감, 진로포부 그리고 가족응집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김남희, 2006; 이은우, 2005).

이와 같이 심리적 안녕감은 자기효능감, 긍정적 자기인식, 대인관계, 환경에 대한 지배력과 같이 개인적 변화로부터 환경까지의 전반적인 안녕상태를 언급한다. 이러한 심리적 안녕감은 건강한 심신기능을 증진하고 정신병리 질환을 예방하며 성취의 측면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수행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Hobfoll, 2002). 즉 심리적 안녕감은 자기 자신 또는 주변 환경에 대한 긍정적 자기믿음을 의미하며 이는 자기 자신을 믿고 스스로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임파워먼트의 개념과도 맥락이 통한다. 결국 부정정서의 완화를 통한 심리적 안녕감의 강화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또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임파워먼트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임파워먼트와 삶의 만족도에 관한 논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의 사전적 의미는

‘누군가에게 권한이나 권력을 부여하다’. ‘능력을 주다’, ‘할 수 있게 하다’라는 뜻이다. 역량강화의 관점에서 임파워먼트에 대한 논의는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모델을 중심으로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강화하고 무력감을 약화시키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즉 무력감을 조장하는 상황을 확인하고 그 상황을 제거함으로써 개인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임파워먼트의 향상은 상실된 통제력을 회복하고 취약성 및 무력감을 제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된다.

최근에는 개인이 가지는 어려운 상황들이 개인의 임파워먼트 정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김미옥, 2005; 김봉선, 2010)가 나오고 있어 임파워먼트의 효과에 관한 언급이나 그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 예로 최정숙, 오지영(2011)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미술활동 활용 프로그램이 임파워먼트 수준을 증가시키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미술활동 활용 프로그램에 노출된 사람들의 임파워먼트, 즉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력, 사회적 지지가 향상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임파워먼트는 그 과정을 통해 신체적 상태 향상, 심리적 안정, 사회적 활동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파워먼트의 효과 중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는 변인 중 하나는 바로 삶의 만족도이다.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인생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개념으로 개인이 자신의 현재 지위와 활동에 대해 갖는 정서적 만족감을 의미하며 개인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유용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김희주, 주경희, 2008). 따라서 높은 삶의 만족감은 높은 삶의 질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임파워먼트와 삶의 질의 관계는 많은 연구들을 통해 타당성이 입증되어 왔다(어용숙, 김문정, 2009; 최명민, 이기영, 엄태완, 2006). 그 예로 최명민, 이기영, 엄태완(2006)은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임파워먼트와 삶의 질 간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임파워먼트 수준이 증가할수록 삶의 질과 회복태도가 증진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정지혜(2007)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임파워먼트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유사한 사례로 유은광, 김혜진, 김명희(2012)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을 거론한다. 구체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과 같은 개인의 내적 인자의 개발과 역량강화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무기력, 소외감,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경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은 현재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삶의 만족도는 임파워먼트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삶의 만족도는 정서적·심리적 상태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는데 선행연구에 의하면 개인의 정서적, 심리적 상태 및 인구 사회학적 요인, 지역사회 등 다양한 심리적, 환경적 요인들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소외감, 무기력증,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의 요인들은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박병선, 진혜민, 허만세, 2011; 최삼옥 외, 2006; Adelman, Taylor, & Nelson, 1989). 예컨대,

조성례, 문재우(2012)의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와 우울, 스트레스, 신체적 건강과는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며 특히 우울은 가장 높은 상관성을 지니고 신체적, 사회적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봤을 때, 부정정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녕감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심리적 안녕감은 임파워먼트와 영향력을 주고받는 주요 변인이라 할 수 있는데 어용숙, 김문정(2009)의 연구에서는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인 유능감이 장애아동 주양육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스트레스 고위험 청소년들의 임파워먼트가 높아질수록 정신건강도 향상되었으며, 자살과 같은 고위험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적응력과 학습능력이 향상되고 문제행동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준, 남영옥, 2008).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부정정서는 심리적 안녕감, 임파워먼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정정서는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녕감 및 임파워먼트와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삶의 만족도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부정정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적 안녕감 및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출신국가별, 거주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층표집에 의해 전국에 있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시기는 2012년 7월 2일부터 2012년 8월 15일까지 실시되었으며 배부된 400부의 설문지 중 총 381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그 중 불성실한 답변이 포함된 12부를 제외하고, 최종 369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 연구도구

#### 부정정서 척도

부정정서 척도는 주관적 안녕감의 정서적 측면의 부정 정서성 척도(Positive Affectivity and Negative Affectivity Schedule: PANAS)를 이현희 등(2003)이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일시적인 감정을 측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검사이며,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평정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문항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0으로 나타나 높은 내적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 심리적안녕감 척도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를 김명소 등(2001)이 수정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PWBS의 답지는 6개 차원을 포함하는 총 46문항과 Likert 식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문항은(2, 4, 6, 7, 9, 10, 11, 12, 16, 18, 20, 21, 22,

23, 26, 27, 33, 34, 36, 40, 41, 45, 46)은 역산하였다. 6개 차원의 하위변인은 타인-자율성, 환경에 대한 지배력,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긍정적 대인관계, 자기수용이다. 본 연구에서 문항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4로 나타났다.

#### 임파워먼트 척도

임파워먼트는 Rogers 등(1997)이 개발하여, 김은영(2001)이 빈곤가정을 대상으로 재구성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구성내용은 4개의 요인으로 자기효능감 8문항(7, 8, 9, 12, 13, 14, 18, 23), 자아존중감 6문항(1, 2, 3, 4, 5, 6), 무기력-힘 5문항(10, 11, 15, 16, 17), 지역사회활동 및 개인내적-자율성 4문항 (19, 20, 21, 22) 등 총 23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설문문항은 6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문항 내적합치도는 .85로 나타났다.

#### 삶의 만족도

주관적 안녕감의 인지적 측면인 삶의 만족도 척도는 Diener 등(1984)이 개발하고 차경호(1999)가 번안한 삶의 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사용하였다. 본 질문지는 5문항,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스로 지각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 정도를 평정하게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스스로의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3으로 나타나 높은 내적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버전과 AMOS 19.0 버전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문제에 따른 자료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부정적 정서, 심리적 안녕감, 임파워먼트,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연령, 결혼 연수, 본인의 최종학력, 배우자 최종학력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부정적 정서, 심리적 안녕감, 임파워먼트가 삶의 만족에 이르는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부정적 정서-심리적 안녕감, 부정적 정서/심리적 안녕감-임파워먼트, 부정적 정서/심리

적 안녕 감/임파워먼트-삶의 만족에 대한 총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N	%		변수	N	%
연령	20대	78	21.1	배우자 학력	초졸	5	1.4
	30대	201	54.5		중졸	31	8.4
	40대	90	24.4		고졸	246	66.7
출신 국가	중국	224	50.7		대졸	79	21.4
	베트남	69	18.7		대학원졸	8	2.2
	필리핀	30	8.1		개인사업	76	20.6
	일본	27	7.3		회사원	92	24.9
	태국	15	4.1		농수축산업	59	16.0
결혼 연수	기타	4	1.1		전문직	18	4.9
	1년미만	9	2.4		서비스업	42	11.4
	1년~3년	68	18.4		일용직	55	14.9
	4~6년	101	27.4		기타	27	7.3
	7~10년	107	29.0	본인 직업	가정주부	233	63.1
11년이상	84	22.8	개인사업		9	2.4	
결혼 유형	연애	33	8.9		회사원	27	7.3
	아는사람소개	94	25.5		농수축산업	41	11.1
	결혼중개업체	225	61.0		전문직	9	2.4
	기타	17	4.6		서비스업	34	9.2
학력	초졸	9	2.4		기타	16	4.3
	중졸	81	22.0	자녀수	1명	126	29.2
	고졸	212	57.5		2명	186	50.4
	대졸	67	16.8		3명이상	40	10.8
	대학원졸	5	1.4				

같다.

**인구사회학적 속성에 따른 심리적 요인의 차이**

인구사회학적 속성에 따라 부정적 정서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연령, 결혼 연수, 본인의 최종학력, 배우자 최종학력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 $F=15.35, p=.001$ ), 결혼 연수( $F=7.89, p=.001$ ), 본인 최종학력( $F=3.02, p=$

.018)에 따른 부정적 정서에 차이가 발견되었다. 먼저 연령의 경우 20대보다 30대와 40대의 부정적 정서가 더욱 높았으며 결혼 연수의 경우 1년 미만보다 1-3년, 4-6년의 결혼 연수에서, 그보다 7-10년, 11년 이상에서 더욱 높은 수준의 부정적 정서가 도출되었다. 다시 말해 결혼 연수가 길어질수록 부정적 정서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인 최종학력의 경우 초졸과 대학교졸, 대학원졸업에 비해 중졸, 고졸의 학력을 가진 다문화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가 유의미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배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정정서의 차이

독립변인	평균(SD)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연령	20대	2.68(0.86)a	25.70	2	12.85	15.35***
	30대	3.25(0.93)b				
	40대	3.42(0.91)b				
결혼 연수	1년 미만	2.38(0.80)a	26.51	4	6.62	7.89***
	1-3년	2.93(0.89)b				
	4-6년	2.93(0.95)b				
	7-10년	3.39(0.88)c				
	11년 이상	3.44(0.93)c				
본인 최종학력	초졸	2.93(0.68)a	10.67	4	2.66	3.02*
	중졸	3.34(0.82)b				
	고졸	3.22(0.95)b				
	대학교졸	2.83(1.06)a				
	대학원졸	3.00(0.54)a				
배우자 학력	초졸	3.10(0.78)	4.95	4	1.24	1.38
	중졸	3.05(0.83)				
	고졸	3.24(0.94)				
	대학교졸	3.06(1.02)				
	대학원졸	2.63(0.72)				

\*  $p<.05$ , \*\*\*  $p<.001$

우자 학력에 따른 부정적 정서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인구사회학적 속성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4개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 $F=15.47, p=.001$ ), 결혼 연수( $F=6.58, p=.001$ ), 본인 최종학력( $F=7.25, p=.001$ ), 배우자 학력( $F=3.12, p=.015$ )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먼저 연령의 경우 20대 집단보다 3-40대 집단의 심리적 안녕감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 연수에서는 1년 미만인 경우보다 1-10년인 경우에서, 그보다 11년 이상인 경우에서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본인 학력에 있어서는 초졸, 대학교졸, 대학원졸업의 경우보다 중졸, 고졸인 경우에서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배우자 학력에서는 고졸보다 초졸, 중졸, 대학교졸업인 경우가, 그보다 대학원 졸업인 경우가 더욱 높

표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독립변인	평균(SD)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연령	20대	3.36(0.77)a	20.53	2	10.26	15.47***
	30대	2.84(0.82)b				
	40대	2.70(0.81)b				
결혼 연수	1년 미만	3.32(0.52)a	17.76	4	4.44	6.58***
	1-3년	3.15(0.80)ab				
	4-6년	3.11(0.82)ab				
	7-10년	2.75(0.85)ab				
	11년 이상	2.65(0.81)c				
본인 최종학력	초졸	3.26(0.47)a	19.44	4	4.86	7.25***
	중졸	2.75(0.74)b				
	고졸	2.82(0.84)b				
	대학교졸	3.38(0.86)a				
	대학원졸	3.34(0.79)a				
배우자 학력	초졸	3.14(0.58)a	8.75	4	2.18	3.12*
	중졸	3.11(0.75)a				
	고졸	2.81(0.83)b				
	대학교졸	3.09(0.88)a				
	대학원졸	3.47(0.67)c				

\*  $p<.05$ , \*\*\*  $p<.001$

은 수준의 심리적 안녕감을 보였다.

인구사회학적 속성에 따른 임파워먼트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연령, 결혼 연수, 본인 최종학력, 배우자 학력에 대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 $F=4.76, p=.009$ ), 결혼 연수( $F=3.43, p=.009$ ), 본인 최종학력( $F=7.12, p=.001$ ), 배우자 학력( $F=6.13, p=.001$ ) 수준에 따른 임파워먼트 수준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먼저 연령에 대한 분석에서는 20대보다 3-40대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임파워먼트 수준이 유

의미하게 낮은 경향이 있었다. 또한 결혼 연수의 경우 1년 미만인 경우보다 1-6년인 경우, 그 보다 7년 이상인 경우 임파워먼트 수준이 더욱 낮았다. 본인 최종학력에서는 중졸, 고졸인 경우보다 초졸, 대학교졸업인 경우, 그보다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최종학력에 대한 분석결과 초졸 및 고졸보다 중졸 및 대학교졸업인 경우, 그보다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에서 임파워먼트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임파워먼트의 차이

독립변인	평균(SD)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연령	20대	2.27(0.31)a	0.76	2	0.38	4.76**
	30대	2.18(0.28)b				
	40대	2.14(0.23)b				
결혼 연수	1년 미만	2.35(0.38)a	1.09	4	0.27	3.43**
	1-3년	2.21(0.29)ab				
	4-6년	2.25(0.30)ab				
	7-10년	2.15(0.26)b				
	11년 이상	2.13(0.25)b				
본인 최종학력	초졸	2.28(0.30)a	2.19	4	0.54	7.12***
	중졸	2.13(0.28)b				
	고졸	2.17(0.26)b				
	대학교졸	2.29(0.26)a				
	대학원졸	2.66(0.55)c				
배우자 학력	초졸	2.15(0.33)a	1.91	4	0.47	6.13***
	중졸	2.25(0.29)b				
	고졸	2.15(0.27)a				
	대학교졸	2.24(0.27)b				
	대학원졸	2.58(0.44)c				

\*\*  $p<.01$ , \*\*\*  $p<.001$

연령, 결혼 연수, 본인 최종학력 및 배우자 학력에 따른 삶의 만족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종합해 봤을 때,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인의 차이는 어떠한가?’라는 연구 문제 1은 검증되었다.

**부정정서, 심리적 안녕감, 임파워먼트, 삶의 만족도에 대한 경로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각 변인 간 높은 상관관계로 인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나타는지 살펴보기 위해 부정정서, 심리적 안녕감, 임파워먼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및 다중공선성 진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VIF(부정정서: 9.409, 심리적안녕감: 9.163, 임파워먼트: 4.857) 수치는 모두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추가적으로 부정정서, 심리적 안녕감, 임파워먼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7~.8 정도의 높은 상관관계가 발견되었고 따라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부정정서와 심리적 안녕감, 임파워먼트가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부정적 정서, 심리적 안녕감, 임파워먼트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문화회귀 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부정적 정서

의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심리적 안녕감( $\beta=52, t=2.29, p=.036$ )과 임파워먼트( $\beta=15, t=.77, p=.046$ )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심리적 안녕감과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심리적 안녕감과 임파워먼트를 거론한 본 연구의 주장과 일치한다.

부정정서가 삶의 만족도에 이르는 경로로서, 심리적 안녕감과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AMOS를 이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모형적합도에 대한 분석결과,  $\chi^2$ 값은 5이상으로 나타났지만 이외 NF(Normed Fit Index)I, TLI(Tucker-Lewis Index) 수치가 8이상,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값이 1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모형적합도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부정적 정서, 심리적 안녕감, 임파워먼트, 삶의 만족도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부정정서와 삶의 만족도 간 부적 관계가 나타난 가운데, 부정정서는 심리적 안녕감을 감소시키고 있었으며 심리적 안녕감은 임파워먼트의 증가로 이어져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부정정서가 삶의

표 5. 상관관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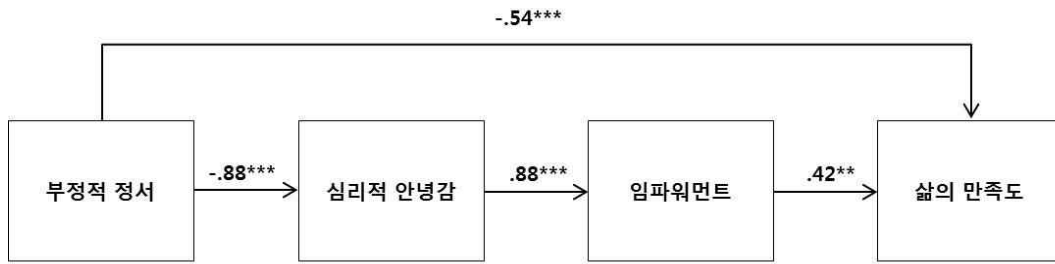
	심리적 안녕감	임파워 먼트	삶의 만족도
부정 정서	-.785**	-.702**	-.773**
심리적 안녕감	-	.801**	.720**
임파워먼트	.738**	.692**	.772**

\*\*  $p < .01$

표 6. 삶의 만족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B	$\beta$	t
부정적 정서	-.28	-.28	-1.42
심리적 안녕감	.50	.52*	2.29
임파워먼트	.14	.15*	.77
Adj R <sup>2</sup>	.84		
F	36.62***		

\*  $p < .05$ , \*\*\*  $p < .001$



$\chi^2=(sd=2)=7.241, p=.027, NFI=.927, TLI=.832, RMSEA=.121$

그림 1. 경로분석 결과

만족도에 이르는 경로는 어떠한가?라는 연구 가설 1은 지지되었다.

### 논 의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삶의 질을 증가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부정적 정서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밝히고 부정적 정서가 삶의 만족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 보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부정적 정서가 삶의 만족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심리적 안녕감과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각 요인들이 어떠한 경로를 형성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에 있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유층표집에 의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부정적 정서, 심리적 안녕감, 임파워먼트 및 삶의 만족도 수준이 다른지 살펴 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먼저 부정적 정서의 경우 연령, 결혼 연수,

본인의 최종학력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연수가 많을수록 부정적 정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에서의 결혼 생활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가 가중되고 삶의 만족도가 낮아짐을 의미한다. 더불어 결혼초기의 언어문제나 적응문제 못지않게 결혼 이후의 삶이 대체로 원만하지 않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본인 최종학력의 경우에는 초졸과 대학교졸, 대학원졸업에 비해 중졸, 고졸의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가 유의미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대체로 교육수준은 소득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높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활동 및 배우자 수준, 가정형편 수준 등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중졸, 고졸의 경우가 초졸에 비해 부정적 정서가 높게 나타난 점은 추후 연구를 통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심리적 안녕감에 있어서도 연령, 결혼 연수, 본인 및 배우자의 최종학력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 연수가 적을수록, 본인 및 배우자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나 부정적 정서와 마찬가지로 결혼 생활의 지속이 심리적 안녕감과 적지 않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한다. 임파워먼트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연령, 결혼 연수, 본인 및 배우자의 최종 학력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이 역시 심리적 안녕감과 유사하게 연령이 높아지고 결혼 생활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파워먼트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정적 정서, 심리적 안녕감, 임파워먼트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심리적 안녕감과 임파워먼트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심리적 안녕감은 그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역시 높아지는 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과정에서 주변인들의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관계를 통한 긍정적 심리요인 즉 자기효능감, 긍정적 자기인식, 대인관계, 환경에 대한 지배력과 같은 요인들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와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들(김오남, 2007; 김현실, 2011; 양옥경, 김연수, 2007; 이기영 외, 2009)을 뒷받침한다.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임파워먼트 역시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임파워먼트와 같은 역량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에게 자기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강점을 강화시켜 스스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심리적인 변화측면과, 다양한 사회적 지원과 연계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임파워먼트의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임파워먼트와 관

련한 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문제해결에 필요한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대처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해 봤을 때 심리적 안녕감, 임파워먼트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부정적 정서를 줄이고 심리적 안녕감과 임파워먼트를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방안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셋째, 부정적 정서, 심리적 안녕감, 임파워먼트가 삶의 만족도에 이르는 경로를 살펴보고자 AMOS를 활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중회귀분석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부정적 정서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물론 부정적 정서-임파워먼트, 부정적 정서-삶의 만족, 심리적 안녕감-삶의 만족에 대한 경로효과가 발견되었다. 다시 말해 부정적 정서가 높은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심리적 안녕감이 낮은 경향이 있고 심리적 안녕감이 낮은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임파워먼트 수준이 낮으며 낮은 수준의 임파워먼트 수준을 보인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삶의 만족도 역시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삶의 만족에 있어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몇 가지의 대안을 제안한다. 첫째,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정적 정서를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경우 자신의 정서를 자각하거나 이해

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므로(김은경, 2010), 부정적 정서 자체를 제거하는데 초점을 두기 보다는 잠재된 긍정성과 자기강점을 찾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이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과 해결능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연령과 결혼연수가 증가할수록 부정적 정서가 높게 나타나고 심리적 안녕감, 임파워먼트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는데 연령이나 결혼연수는 결혼지속연수를 대변하는 시간적 변수 및 세대별 가치관을 반영하는 규범적 변수로서 부부갈등이나 친밀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다(이경희, 1998). 이들의 부정적 정서가 높고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결혼초기의 언어문제나 적응문제 못지않게 이들의 결혼 이후의 삶이 대체로 원만하지 않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화적응이나 한국어교육만이 아니라 가족치료적 혹은 가족상담적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파워먼트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경우 대부분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열등한 국가 출신이 많고 현재의 경제적 생활수준도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보건복지부, 2007). 상당수가 부부갈등이나 가정폭력을 호소하고(김이선, 김민정, 한건수, 2006; 김명성, 2009), 우울이나 불안, 무기력 등 부정적 정서(김도희, 이경은, 2010; 양옥경, 김연수, 2007; 김오남, 2006; 임혁, 2010)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기효능감이나 자아존중감이 낮을 수 있다. 결

과적으로 동기부여적 관점에서 임파워먼트를 접근하여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강화하고 무력감을 약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부정적 정서가 삶의 만족도에 이르는 경로를 분석하였다. 궁극적으로 부정정서를 완화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심리적 안녕감과 임파워먼트의 직·간접적 효과를 모색해 보았다는데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연구결과에서 제시했듯이 부정적 정서, 심리적 안녕감, 임파워먼트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간 집단차이 검증결과 결혼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정적 정서가 증가하고 심리적 안녕감 및 임파워먼트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결혼생활을 원만하게 지속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임파워먼트와 같은 강점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며 다문화가정 어머니뿐만 아니라 남편 및 가족들에 대한 교육 및 가족상담적 접근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삶의 만족도에 관여하는 선행요인을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의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가와 결혼유형을 다루었지만 전체적인 연구의 맥락에 있어 출신국가와 결혼 유형에 따라 심리적 요인이 다르게 나타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했다. 다문화가정이라 할지라도 출신국가, 경제적 수준, 결혼 유형 등에 따라 다양한 환경에 경험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을 하나의 차원으로 포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추후 연구에서 다문화가정을 좀 더 세분화하여 고찰하는 것은 물론 한국상황 및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의 구성 배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면 더욱 설득력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둘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에 관여하는 선행요인들을 추출하였지만 왜, 어떠한 부분이 부정적 정서, 심리적 안녕감, 임파워먼트 수준을 증가 및 감소시키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이러한 부분은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추후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질적 연구에 대한 재고찰까지 이루어진다면 좀 더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로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을 단계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의미가 있다.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봤을 때 다문화가정의 운택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마련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이것이 야기할 수 있는 결과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것은 추후 다양한 다문화가정 연구들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 참고문헌

장경미 (2013).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활동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공영길 (2009). 외모만족도와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거주민감성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곽금주 (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과 적응: 다문화가정에서의 부모-자녀간의 상호 패턴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2008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26.

김경민·임정하 (2012). 대학생의 낙관성과 행복추구경향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50(1), 89-101.

김경순 (2006).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남희 (2005). 희망과 사회적지지, 대처방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도희, 이경은 (2010). 결혼이민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경로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 15(2), 5-25.

김명성 (2009). 사회통합 차원에서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실천, 8, 6-27.

김명소·김혜원·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39.

김미옥 (2005). 장애인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2, 351-381.

김봉선 (2010).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에 나타난 임파워먼트 과정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2), 375-397.

김순이 (2010). 다문화가정 부부갈등요인에 관한

- 연구: 경기도 안산시 결혼이민여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승권 (2010). 한국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18.
- 김오남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족과 문화, 18(3), 63-106.
- 김은경 (2010). 다문화가정 모-자녀의 긍정심리성향 증진을 위한 긍정심리프로그램 개발.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영 (2001). 사회적 지지가 빈곤가족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 (2006).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갈등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현실 (2011).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20(2), 188-198.
- 김현옥 (2010).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이 역량지각 및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동덕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희주 · 주경희 (2008). 한국적 성공적 노후척도를 활용한 노인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1, 125-158.
- 박경동 (2007). 다문화가족 형성과 갈등에 대한 연구: 한국의 광주, 전남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 박병선 · 진혜민 · 허만세 (2011). 남성알코올중독자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가족기능과 가족지지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8, 172-204.
- 변미희, 강기정 (2010). 다문화 가족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 관련 요인. 한국사회복지학, 15(2), 127-141.
- 보건복지부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복지 지원 정책방안.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다문화가정 지역정책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성현란 (2011). 남편의 성역할, 고정관념, 다문화감수성 및 아내문화수용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결혼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7(2), 219-239.
- 송미경 · 지승희 (2007).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경험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총서) 130. 1-89.
- 송선화 · 안효자 (2011).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양육경험. 정신간호학회지, 20(2), 167-179.
- 안미숙 (2010). 직장인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관계에 관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옥경, 김연수 (2007). 서울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정신보건과사회사업, 26, 79-110.
- 어용숙 · 김문정 (2009). 양육스트레스와 임파워먼트가 장애아동 주양육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아동건강간호학, 15(4), 409-416.
- 오세연 · 신인봉 (2012). 다문화가정의 사회유대관계정도에 따른 가정폭력발생 위험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9(1), 37-65.
- 오옥선, 김성봉 (2012).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양육경험 들여다보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8(2) 235-260
- 유은광 · 김혜진 · 김명희 (2012). 결혼 이주 여성의 삶의 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

- 한간호학회지, 42(2), 171-180.
- 이경희 (1998). 부인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친밀감. 한국생활과학회 학술대회.
- 이기영, 박영희, 엄태완, 김현경, 김현아 (2009). 이주난민의 정신건강과 상담. 서울: 나눔의 집
- 이명자 (2010). 다문화가정 부부갈등 요인과 대책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준 · 남영옥 (2008). 스트레스 고위험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와 정신건강. 정신보건과사회사업, 30, 136-161.
- 이선미 · 이경아 (201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3), 71-105.
- 이윤희 (2009). 직장인의 직무만족과 자아정체감 및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우 (2005). 대학생의 정서지능,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향범 (2012).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결혼 및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희 · 김은정 · 이민규 (2003).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정 정서 척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935-946.
- 임 혁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4(4), 189-221.
- 장은순 (2011). 다문화가정 여성의 심리 및 가족 관계적 특성이 자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성무 (2013.09.14). 곧 추석인데... 매 맞는 다문화가정 여성 폭증. 『뉴스 1』. available: <http://news1.kr/articles/1323115>
- 정지혜 (2007). 노인의 임파워먼트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성례 · 문제우 (2012). 건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보건연구, 38(2), 21-40.
- 지은진 · 최지명 · 김교현 · 권선중 · 박은진 · 이민규 (2012).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7(1), 243-252.
- 차경호 (1999). 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호서대학교 사회과학연구, 18, 575-595.
- 최명민 · 이기영 · 엄태완 (2006). 정신장애인의 임파워먼트 및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세팅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4, 94-124.
- 최삼욱 · 나란희 · 김한호 · 최성빈 · 최영숙 (2006). 남성 알코올 의존 환자의 삶의 질과 정신-사회-영적 특성과의 관계. 신경정신과학, 45(5), 459-467.
- 최정숙, 오지영 (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미술활동활용 집단프로그램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3(9), 319-348.
- 통계청 (2013). <인구통계 연보>. 대전: 통계청.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 5-34.
- Diener, E. (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 34-43.

- Hobfoll, S. E. (2002). Social and psychological resource and adaptation.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6*, 307-324.
- Parsons R. J. (1999). *Empowerment practice in social work*. Canadian Scholars' Press Inc.
- Rogers, E. S., Chamberlin, J., Elloson, M. L., & Cream, T. (1997). A consumer constructed scale to measure empowerment among users of mental health services. *Psychiatric Services, 48*(8), 1042-1047.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논문 투고일 : 2013. 09. 13

1 차 심사일 : 2013. 10. 15

게재 확정일 : 2014. 02. 25

## Influence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Negative Emotion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Empowerment of Mother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Oh, Ok Sun

Dept.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 Lecturer

This study was designed to look into whether there is any mediated effect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empowerment on the path of the negative emotions of mother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urning into the life satisfaction and tried to demonstrate empirically factors to mitigate the decline in the life satisfaction due to negative emotions of mother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addition, we verified the differences of psychological factor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ology of population of mother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For this, the survey was conducted with 400 mother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cross the n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case of negative emotions, there were differences among groups depending on ages, years of marriage and educational background. In case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empowerment, there were differences among groups with different age, years of marriage, their own or their spouse's educational background. Second, as a result of looking into the path through which negative emotions turned into life satisfaction, there were the path effects between negative emotions and empowerment, between negative emotions and life satisfaction, and betwee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life satisfaction. This means that dealing properly with negative emotions can have positive impacts on the three dimensions of psychological well-being, empowerment, and eventually the life satisfac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took psychological factors of mother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to consideration and the results can be used as useful data to come up with political measures for mother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future.

*Key words* : mother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negative emotions, psychological well-being, empowerment, life satisfaction